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언어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언어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발달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통신 언어의 사용은 컴퓨터로 상징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컴퓨터의 도입은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되어 오던 기존의 언어를 변화시켰고, 넓게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언어의 변천이라 함은 사용되는 언어가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져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아감을 나타내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한 갑작스런 언어 변화는 자의적인 변화가 아닌, 매체의 발생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파생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파괴적인 측면까지 발견된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매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긴, 흔히 말하는 ‘통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언어’, ‘인터넷 언어’, ‘온라인 언어’, ‘채팅 언어’, ‘컴퓨터 대화방 언어’, ‘사이버 언어’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약간씩의 의미 차이는 보이지만 결국은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 쓰이는 언어라는 궁극적인 대상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 많은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통신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 용어가 가진 개념을 포괄하고자 한다. 또한 요즈음에는 ‘통신 언어’가 단지 컴퓨터 환경에서만 쓰이는 언어만이 아닌,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대화라는 음성의 영역에까지 전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신 언어’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칭하는 범위의 확장 현상은 ‘인터넷 통신 언어(통신 언어/통신어)

란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말한다.’는 통신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¹⁾ 이 정의에서 글자 언어를 ‘모든 종류’로 확대한 것은 일상어의 ‘글말’과 함께 전자 통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시각적 표현들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 언어는 일반적인 국어 규범을 어기고, 규칙이나 질서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제도를 일탈하는 것에 신선한 재미를 느끼어 생성되기에 일반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신 언어는 빠른 전달성을 가지고 있다. 통신 언어는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매체인 컴퓨터의 사용은 글을 올리면 단 몇 초 만에 통신상에 글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통신 이용자는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통신 언어는 무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통신상에 올라오는 글이 대체적으로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타자를 잘못 쳐서 발생한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오타가 발생되어 그대로 게시판에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언어가 다른 사용자의 눈길을 끌어 따라 쓰게 됨으로 새로운 말이 생기는 것은 통신 언어가 가진 무의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 무의도적인 성격으로 인해 잘못된 표현이 오히려 언어의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신 언어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3,400만 명을 넘어 국민의 74%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

1)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3, p.21.

2) ‘오나전’의 경우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완전’을 타자하려고 의도하였지만 오타가 난 그대로 통신 환경에 올라왔기에 사용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언어는 통신 언어의 주도자인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 현재는 ‘오나전’을 의도적으로 쓰고자 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군사적, 학술적 성격의 인터넷 통신 공간이 점차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지역, 성별의 벽을 넘어 상호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 언어가 지닌 대중성은 특수한 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평범한 일반 대중들도 통신 언어상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새로운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언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새말을 만들어 내는 창조자와 새말을 수용하는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는, 생산과 수용의 통합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통신 언어의 대중성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일반 언어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정된 것을 수용자는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통신 언어는 통신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해 생겨나면서, 또한 그들에 의해 수용된다. 그렇기에 쌍방향의 의사소통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통신 언어의 개방성과 비대면성을 말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줄 알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고, 통신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누구와도 접근의 제약 없이 많은 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여섯째, 통신 언어의 소멸성을 들 수 있다. 일반 언어는 새로운 말이 어렵게 생성되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반면에, 통신 언어는 쉽게 생성되고 쉽게

3)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6년 12월 전국 10,000가구(25,727명)를 대상으로 한 ‘2006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행태별 특징을 조사한 결과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4.8%이며, 이용자 수는 3,4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만 명(2.0%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이용이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0대(74.9%) 및 50대(42.9%)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년 대비 각각 6.2%p와 7.2%p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을 들어, 40~50대 중장년층이 인터넷 이용률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밝혔다.(정보통신부 2007년 2월 1일자 보도 자료 참조).

없어진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말을 쉽게 만들어 내는 통신 언어의 생산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 새로운 표현이 생겨 사용하다 보면 쓰던 것에 싫증이 생겨 또 신선한 표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멸성과 생산성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 언어는 온전한 문장의 형태로 보기 힘든 짧은 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 언어에서는, 특히 글말에서는 온전한 문장으로 제시되어야만 하지만, 통신 언어에서는 맥락과 상황에 기댄 화용론적 측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일반 언어와는 다른 통신 언어라는 급격한 발달을 파생시킨 컴퓨터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수없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영향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가치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통신 언어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에까지 통신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언어생활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통신 언어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어느 것이 올바른 언어인지 분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통신 언어에 몸이 밴 언어 습관인 것이다. 잘못된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획득되어야 할 과업인 인격적인 성숙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성세대와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더욱 고착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는 등 정의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10대인 청소년들에 의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통신 언어가 점차 어린이들과 2, 30대에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에 올바른 국어 생활 영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10대들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언어 현실을 직접 체감할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인 언어 교육에만 머무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언어 현상을 개선시킬 만한 뚜렷한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 못한 듯하다. 학생들의 언어 현실을 알면서도 심각한 현상이라고 단정만 내린 채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이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근본적인 반성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광범위하게 잘못된 현상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해 보고, 반성하게 하여 국어 생활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오염된 언어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실태 분석을 통하여 통신 언어의 심각성을 알아보며 둘째, 국어과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통신 언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7차 교육과정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개정하였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셋째, 통신 언어가 일상 생활에서의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사 검토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통신 언어에 대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진 1990년대에는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을 감안한다면 현재 통신 환경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최근에 행해진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수진(2005)은 통신 언어가 가진 언어상의 오류를 크게 통사론적 오류와 형태·음운론적 오류, 정서법상의 오류, 어휘적 오류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지도방안은 학교와 정부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 측면에서의 지도방안으로 제시한 학습지도안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국어 생활에 대해 반성해 보게끔 하기 위해 인터넷의 대화방이나 자유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한 온라인의 실태와 더불어 휴대폰 메시지, 대중가요의 노랫말, 방송·신문 등의 대중매체 등의 실태 파악을 중점에 두어야 함을 밝혔다. 또 하나의 지도방안으로 정부정책의 측면으로는,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수업 시간 배당이 현실화 되어야 하며,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홍지은(2006)은 중학생들의 PC 통신 이용 실태와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61%에 달하는 학생들이 통신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을 내세우면서 통신 언어 당사자들까지도 문제의식을 지니기 시작할 만큼 통신 언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음운론적 현상, 어휘론적 현상, 형태론적 현상, 화용론적 현상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통신언어와 관련된 단원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생활 국어와 2학기 국어 단 두 단원에 그치고 있음과 아울러 이들 단원이 중학교 1학년에서만 지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좀 더 많은 단원이 생겨나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이 전 학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외래어, 은어, 비속어, 약어, 신조어를 찾아보는 조사를 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느낀 통신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통신 언어활동에 임할 것을 내면화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만이 아닌, 범국가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최은설(2003)은 통신 언어가 한글에 부정적인 영향만이 아닌, 새말의 형성, 어휘의 의미 확대, 화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 친교적 기능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을 서술하여 통신 언어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지도방안으로 서술한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표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주며 바르게 가르쳐 주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한 학급을 제시하였는데, 이 학급은 모둠일기를 쓰는 학급의 담임인 국어교사의 계도로 인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모둠일기를 쓰기 시작한 무렵, 이 학급의 학생은 다른 또래의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국어교과를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지적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 제시와 함께 바른 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게 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언어생활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에서의 활동을 교과서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통신 언어상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올바른 표준어로 바꾸어 고쳐 보게 하고, 반대로 바른 표현의 언어를 통신 언어로도 고쳐보게 하여 학습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등한시되고 있는 문법 교육의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주장한 바가 실제적인 지도 방안이 없이,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한계로 지적되었다.

정경옥(2005)은 제7차 교육과정의 통신 언어가 속하는 국어지식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중학교 국어, 생활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인 국어생활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크게 언어와 관련 단원과 표기 · 문자 단위 관련 단원으로 나누고, 언어 관련 단원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관련 단원, 통신 언어 관련 단원으로 세부화하여 제시하였고, 표기 · 문자 단위 관련 단원은 음운과 형태 관련 단원, 맞춤법 관련 단원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통신 언어의 실태를 제시할 때에는 관련 단원의 교과서 예시와 인터넷 게시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정창웅(2004)은 통신 언어 지도에 대해 통신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당위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통신 언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학생들 스스로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렇기에 통신 언어의 지도 내용은 우선 학생들의 부적격한 언어 습관의 교정과 나아가 올바른 언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그 핵심내용으로 삼아야 함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지도 내용을 5가지로 항목화하였는데, 통신 언어에 대한 이해와 태도 지도, 통신 언어 사용의 문제점 발견 지도, 통신 언어의 표기와 음운 지도, 통신 언어의 어휘 지도, 통신 언어의 담화 구성 지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에까지 과급된 이유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통신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청소년이란 10대인 중, 고등학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미래의 국어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할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상 교육적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니홈피와 채팅방을 위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주로 청소년들이 올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댓글도 함께 살펴 통신 언어의 실태를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On-Line)상에서 쓰이는 언어만이 아닌, 온라인(On-Line) 통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오프라인(Off-Line)상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일상생활의 언어도 아울러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를 음운론적, 어휘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 표기법적 현상으로 구분하여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가능한 말을 간단하게 하

려는 경제성과 신선함과 재미를 추구하여 표현의 극대화를 꾀하는 표현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음운론적 현상은 말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어휘론적 현상은 단어의 총체인 어휘를 중심으로 밝혔다. 통사론적 현상은 문장을 단위로 하는 실태를 나타내었고, 화용론적 현상은 문장 이상의 단위를 담았다. 표기법적 현상은 글로 나타낼 때 보이는 현상에 토대를 두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담긴 통신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담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1~10학년까지의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중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인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영역 제시 순서에 따라,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식의 순으로 제시⁴⁾한다.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비교하여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과 표현성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지도 내용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4)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영역의 하나인 문학의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통신 언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 통신 언어의 실태 분석

2.1. 음운론적 현상

2.1.1. 축약과 생략

축약과 생략 현상은 전화와 모뎀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 초기에는 자판을 하나라도 덜 쳐서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는 현재 통신 환경에는 사용하는 시간에 따른 비용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통신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시간과 노력의 간소화와 편리성 추구로 말할 수 있다. (1)은 2음절의 단어를 1음절로, 3음절의 단어를 2음절로 축약시키거나, 긴 단어를 짧게 표현한 생략된 형태이다. (1)㉠의 ‘권’은 ‘주’와 ‘인’이 결합하여 ‘ㅈ’와 ‘ㅣ’의 모음이 결합하여 ‘기’로 나타났고, ㉡의 ‘섬’은 ‘시’와 ‘힘’의 결합 과정에서 자음 ‘ㅎ’을 생략시키고, 모음 ‘ㅣ’와 ‘ㅅ’의 결합으로 ‘ㅆ’가 나타났다. ㉢은 ‘제일’을 ‘젤’로 축약한 형태인데, 이 예는 ‘ㅣ’ 모음을 생략시킨 형태이다. ㉣은 ‘우’와 ‘리’가 결합되어 ‘울’이 된 것에서 모음 ‘ㅣ’가 생략된 것이며, ㉤은 ‘비디오’가 ‘비도’가 된 것은 모음 ‘ㅣ’와 ‘ㅇ’가 결합하여 ‘ㅇ’로 축약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은 자음 ‘ㅈ’과 모음 ‘ㅡ’가, ㉦은 모음 ‘ㅣ’가 생략된 것이다. 축약 현상은 자음이 축약된 결과도 있었지만, 주로 모음을 축약시키거나 두 모음이 연이어 나타날 때 이를 이중모음화 시키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였다. 생략 현상은 자음이 생략되는 현상도 있었지만, 모음이 생략되는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1) ㉠ 권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 ㉠ 섬이 제일 시로~
- ㉡ 니가 정말 켈루 이빠~
- ㉢ 울 남친 잘생겼취?
- ㉣ 이 비도 완전 짬난당
- ㉤ 완전 짬난닷!
- ㉥ 일욘날 머해?

축약과 생략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썸	주인
㉡	섬	시험
㉢	켈	제일
㉣	울	우리
㉣	비도, 짬	비디오, 재미
㉤	짬	짜증
㉥	일욘	일요일

2.1.2. 첨가

위에서 살펴본 축약과 생략 현상은 사용자가 표현 과정에서 얻으려는 편리성의 추구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과 반해 살펴볼 것이 첨가 현상이다. 주로 종결어미에 ‘ㅇ’, ‘ㅁ’, ‘ㅅ’, ‘ㅂ’ 등의 자음이 삽입되는데, 이러한 자음이 삽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종결어미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닌, 비언어적인 의미를 전달하려는 발화자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기존의 단어에 자음이나 모음을 첨가시킴으로써 표현을 부드럽게 만들고 친근한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어감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흔히 많이 일어나는 자음 ‘ㅇ’의 삽입은 애교 있는 표현으로 친근함을 주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또한 ‘ㅁ’, ‘ㅅ’은 의지의 확고함이나 강한 인상을 나타내기 위해 삽입한다. 이들은 운율적 느낌을 가지게 하며, 발화자의 감정 상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자음 ‘ㄷ’, ‘ㅎ’ 등의 삽입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미만을 추구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에 받침으로 많이 붙었던 ‘ㅇ’, ‘ㄴ’, ‘ㅅ’ 등에서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따라붙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2) ㉠ 오늘은 꼭 자공, 내일 보장~^^

㉡ 오늘은 공부를 올씨미 해야짓~

㉢ 뵙~알겠습니닷!

㉣ 구러지 말아욘~

㉤ 나 아니달...

첨가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자공, 보장	자고, 보자
㉡	해야짓	해야지
㉢	뵙, 알겠습니닷	네, 알겠습니다
㉣	말아욘	말아요
㉤	아니달	아니다

2.2. 어휘론적 현상

2.2.1. 은어

흔히 은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말을 지칭한다.⁵⁾ 그렇기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외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사용되던 은어는 없어지고, 새로운 은어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통신 언어에서

5)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130.)

쓰이는 은어는 이러한 비밀 유지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통신상의 은어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개성화된 표현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일탈 의식으로 그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통신 언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했을 정도로 통신 언어상에 보편화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러한 어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해서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4~50대의 중, 장년층은 통신 환경에서 이러한 어휘를 보고도 의미를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세대 간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3) ㉠ 나 새 옷 샀는데, 간지나냐? ㅋㅋ

㉡ 어제 팬시점에 갔는데, 거기서 울 학겨 애덜 펜 뽀리고 있더라~~

㉢ 쪽팔료~~

㉣ 엄마가 잡으로 오길래 열라 토졌어~

㉤ 울 반 담탱이는...

㉥ 울 남친 이러케 차려입으니 뽀대 제대로다~?

㉦ 너 아까부터 왜케 야려보냐?

㉧ 우리 범생이집단 갈당~

은어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간지	폼, 멋
㉡	뽀리고	흠치고
㉢	쪽팔료	창피해
㉣	토졌어	도망쳤어
㉤	담탱이	담임선생님
㉥	뽀대	폼, 멋
㉦	야려보냐	쳐다보니, 께려보니
㉧	범생이	모범생

2.2.2. 비속어

비속어는 어떤 대상을 얕잡아보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는, 비속하고 천한 어감이 있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속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그 사용자로 하여금 천박하고 무식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통신 환경에서의 비속어 사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등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속어를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 통신 이용자들은 이러한 비속어를 쓰는 이용자들끼리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대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4) ㉠ 너 왜 이러케 사람 뒷골 뺨기게 하나?

- ㉡ 나 존나 피곤하다~TT
- ㉢ 니 대가리에는 똥만 차 있냐?
- ㉣ 씨발~~짱나!!
- ㉤ 니 주둥아리 좀 닥치고 있어랏~
- ㉥ 지랄까고 있네~
- ㉦ 니 눈깔은 이것도 못보냐?
- ㉧ 이논아~어디 뺨겨 왔어?
- ㉨ 여기 웰케 꼬졌냐?
- ㉩ 카~~니 몸매 끝내준당~~

비속어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뒷골 뺨기게	화나게
㉡	존나	매우, 심히
㉢	대가리	머리
㉣	씨발	(뚜렷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욕설)
㉓	주둥아리, 닥치고	입, 다물고
㉔	지랄까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㉕	눈깔	눈
㉖	눈	너 (‘눈’은 상대방 여자를 저속하게 부르는 표현이므로,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㉗	꼬졌냐	낙후되었니
㉘	끝내준당	대단하다, 굉장하다

2.2.3. 약어(두자어)

약어 형태는 있어야 할 음절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는 수용자들도 쉽게 생략된 것을 짐작하고 원 상태로 인식하기에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긴 단어를 짧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약어의 형태는 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나타나는, 두자어의 형태가 많이 보인다.

- (5) ㉑ 내가 이 사이트 강추한당
 ㉒ 권장이 나 강퇴당했어TT
 ㉓ 즐팅하삼~ㅋㅋ
 ㉔ 니 전번이 어케 되냐?
 ㉕ 우리 정모 언제해염?
 ㉖ 우리 옷 공구하까?
 ㉗ 우리 야자 핑겼어~

약어(두자어)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강추	강력추천
㉡	강퇴	강제퇴장
㉢	즐팅	즐거운 채팅
㉣	전번	전화번호
㉤	정모	정기모임
㉥	공구	공동구매
㉦	야자	야간자율학습

2.2.4. 외래어, 외국어

우리 고유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말을 쓰면 왠지 품격 있게 보인다는 잘못된 의식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어휘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환경에서의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타나는 형태는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고친 형태와, 외국어 표기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6) ㉠ 와이? 왜 전화한겨?

㉡ 하이염~~~

㉢ Are you OK?

외래어, 외국어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와이	왜
㉡	하이	안녕
㉢	Are you OK?	괜찮아?

2.2.5. 방언

지리적 요인에 의해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동남 방언, 서남 방언, 제주 방언의 여섯 개로 분화된 방언을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통신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지방의 언어는 같은 지방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집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타 지역의 사람들도 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친근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 환경에서 보이는 방언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 언어에서 주로 쓰이는 방언은 현실적인 방언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며,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방언이 혼합해서 나타나는 등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7) ㉠ 난 정말 몰라유~

㉡ 넌 그 정도면 된당께~~

㉢ 너 쪼매 이쁘당~ㅋㅋ

㉣ 난 섬 정부 열라 안 했는데...우짜믄 존노ㅌㅌ

㉤ 내일 가입시더~~

㉥ 너 지방 그럴거여?

㉦ 내일 먹읍시데이~

방언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몰라유	몰라, 몰라요
㉡	된당께	돼
㉢	쪼매	약간, 조금
㉣	우짜믄 존노	어떻게 하지
㉤	가입시더	갑시다, 가자

㉠	시방, 그럴거여	진짜, 그럴 꺼야
㉡	먹읍시데이	먹읍시다, 먹자

2.2.6. 유행어

그 시대에 쓰이는 언어를 살펴보면 당시 사회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 서론 부분에서도 밝혔다. 즉 언어를 살펴보면 시대를 주도한 흐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통신 언어의 생산성과 연결 지어 보면, 통신 환경에서의 유행어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행어를 통해 신선함과 독특함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며, 시대를 풍자할 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 (8) ㉠ 니 올라 몸짱이닷~ㅋㅋ
 ㉡ 서글픈 이태백 신세ㅜㅜ
 ㉢ 이 무식한 초딩들~
 ㉣ 너희 아버지 사오정 안 당하려면..
 ㉤ 니 공주병이나?

유행어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몸짱	몸매가 좋다.
㉡	이태백	20대 대부분이 백수
㉢	초딩	초등학생
㉣	사오정	45세가 직장인의 정년
㉤	공주병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현상

2.3. 통사론적 현상

2.3.1. 어순 바꾸기

통신 언어 환경에서 화자(話者)가 강조하여 나타내려는 부분을 문장 앞머리에 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작용되어 어순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국어 어순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위치로 간략화시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신 환경에서는 이러한 어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장 성분이 뒷자리에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문장 뒷부분을 생략시키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 (9) ㉠ 옷...입을게 업어서 샀지....
 ㉡ 졸린다...어제 잠을 못자서...ZZZZ
 ㉢ 90점.....나 기말고사서 받은 점수 ㅎㅎㅎ
 ㉣ 완전 실타~난 너가 그런짓 할때마다;;;
 ㉤ 왜 짜증이야....맨날 나한테

어순 바꾸기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옷...입을게 업어서 샀지	입을 게 없어서 옷을 샀지
㉡	졸린다...어제 잠을 못자서	어제 잠을 못 자서 졸린다
㉢	90점.....나 기말서 받은 점수 높지	나 기말고사에서 90점 받았어
㉣	완전 실타~난 너가 그런짓 할때마다	난 너가 그런 행동 할 때마다 너무 싫더라
㉤	왜 짜증이야....맨날 나한테	왜 만날 나한테 짜증이야

2.3.2. 문장 줄이기

2.3.2.1. 생략 형태

나타내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경제성의 차원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등을 일부러 적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써 글을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쉽게 내용 파악을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국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어의 담화는 실제로 문장 단위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장 줄이기 현상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0) ㉠ 넓은 갈따구를 만날 예정..쿠쿠~

㉡ 짐은 학교서 내준 숙제중..TTT

㉢ 개짜증;;;;;;;;;;;;;

문장 줄이기 현상(생략 형태)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예정	예정이야
㉡	숙제중	숙제중이야
㉢	개짜증	짜증이 난다

2.3.2.2. 명사형으로 종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은,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등을 명사형으로 종결시킴으로써, 자신이 전달하려는 의미만을 간편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종결어미의 사용으로 문맥상 부자연

스러운 느낌을 준다.

(11) ㉠ 나 어제 섬 개피보고 완존 대성통곡함.....

㉡ 너 그만식으로 했따간 피박쓸것임

문장 줄이기 현상(명사형으로 종결)		
구 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대성통곡함	대성통곡했어
㉡	피박쓸것임	손해를 입을 거야

2.4. 화용론적 현상

2.4.1. 존댓말의 미사용

통신 환경이 가지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존댓말의 사용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개인 홈페이지나 포레들끼리 소통하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글을 보는 것이 친구나 포레들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이 반말체로 쓰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기에 포레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존댓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신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 경우에도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중 격식체의 높임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수하게 하십시오체나, 하오체 등의 격식체가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존댓말의 측면에서 높인 것이라기보다 재미와 신선함을 추구하는 등 다른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그렇기에 높임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존댓말이 사용된다고 해도, 격식체보다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12)의 예는 또래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보이는 반말체의 형태이고, (13)의 예는 공적인 게시판 등 글을 읽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측하기 어렵거나, 자신보다 어른께 글을 쓰는 경우 나타나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형태이다. 이 경우처럼 높임법을 실현할 때에도 해요체에 자음 ‘ㅇ’, ‘ㄱ’ 등의 받침이 첨가되는 통신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인다.

- (12) ㉠ 너 머해????????
 ㉡ 누구야?
 ㉢ 널구있넝~~~
 ㉣ 존니싫어;;;;;;;;;;;;;
 ㉤ 꺼져——^

존댓말의 미사용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머해	뭐해요, 뭐하십니까
㉡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	있넝	있네요, 있습니다
㉣	싫어	싫어요, 싫습니다
㉤	꺼져	비키세요, 비키십시오

- (13) ㉠ 소개 부탁드립니다~~~~
 ㉡ 따분하정??????
 ㉢ 용돈쫌 올려주셨음 조켓어욤^^;
 ㉣ 다름이 아니구여.....
 ㉤ 등업해 주세요~~~~

존댓말의 미사용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부탁해염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	따분하정	따분하지요, 따분합니까
㉢	조켓어욤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	아니구여	아니고요
㉤	주세요	주세요, 주십시오

2.4.2. 부정적인 반응

통신을 이용하는 어린 이용자일수록 상대방의 글에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상대방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맛보기도 한다. 이런 반응은 주로 욕설과 비속어와 같이 실현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즐거움으로 해방감과 일탈감을 느끼는 등 이상심리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상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감에 따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진심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린 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런다는 등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당연하게 여기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 통신 환경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다.

(14) ㉠ 민리더 : 넌닥치구 카아 ? 호구년아

만화닌자 : 어렸을때랑 커가는 모습이랑 같으면 그게 사람이니 ??

정작 니들을 봐봐 너네들도 달라

팝 : 민리더...호구년이라...내가 남자라고 하면 뭐라 말할래? 콧

쳐맞을라고

㉡ 농노 : 영원한 비호감

샤방 : 니 얼굴이나 생각하성.....인생왜글케사냥....

반장홀이: 짜질이들ㄱㄷ

㉔ 귀염둥이 : 소개 부탁염^^

kathy : 즐~~~~~

㉕ 호인아 : 지겨워... 제발 그만좀 쳐 올려라. 재수없다..웁

게에블 : 니보라고 올리는거 아니거덩~꺼져랏!!!

호인아 : 썩지랄병....

㉖ 민쥬 : 나 도토리 주랑~~~

일빠 : 니가 머라구 주냐?

부정적인 반응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⁶⁾
㉑	닥치구, 호구년, 쳐맛을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어. · ('년'은 상대방 여자를 저속하게 부르는 표현이므로,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님'자를 붙이는 것이 통신상에서의 바른 호칭 방법이다.) · ('꽉 쳐맛을라고' 표현은 고압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㉒	비호감, 니 얼굴이나 생각하성, 인생왜글케사냥, 짜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지 호감이 가지를 않네. ·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p>전에, 본인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왜글케사냥'은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의 경향이 강하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찌질이'는 상대방을 얕잡아 표현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㉔	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할 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즐'이 사용된다. 이는 대체할 일상 언어가 없는 일종의 감탄사로 볼 수 있기에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㉕	쳐 올려라, 재수없다, 썩, 꺼져랏, 썩지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만 좀 올렸으면 좋겠어. ·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표현이므로, 삭

		제하는 것이 좋다.) · (옥설에 가까운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㉓	니가 머라구 주냐	· 너한테 주기 힘들 거 같은 데..

2.5. 표기법적 현상

2.5.1.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소리 나는 대로 말하려고 하는 현상은 겹자음이나 이중 모음이 오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단자음이나 단모음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의미를 강조하고 어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 강하게 발음 나는 현상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 규범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0대 중, 고등학생들에게 문법과는 맞지 않는 언어 현상을 제시하게 하여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 (15) ㉑은 앞 음절의 받침인 자음이 뒤로 연결되어 표기되는 것이다. ㉒은 ‘많이’ ‘싫어하니’에서 보이는 겹받침이 각각 ‘ㄴ’, ‘ㄹ’로 소리 나는데, 이 소리가 연결되어 ‘마니’, ‘시러하니’로 표현된 것이고, ‘좋아하는데’의 받침 ‘ㅎ’은 뒷 음절이 모음일 경우 발음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조아하는데’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㉔, ㉕은 ‘뭔데’, ‘뭐야’의 이중 모음이 ‘먼데’, ‘머야’로 단모음화되고 있는 형태이다. ㉖은 ‘갓구’가 강하게 표현되어 ‘가꾸’로 나타나고 있다. ㉗은 ‘맞아’에서

- 6) 부정적인 반응 현상은 통신상의 잘못된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꾼다고 하여도, 여전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투의 느낌을 지워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㉑에 등장하는 ‘쳐맞을라고’의 잘못된 표현을 올바른 표현인 ‘맞을라고’로 바꾼다고 하여도 ‘맞을라고’라는 어휘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느낌까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반응 현상의 올바른 표현은 어휘상으로 고치는 것보다, 문맥상의 측면에서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 현상이 문장 이상의 단위를 다루는 화용론적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받침 ‘ㄷ’이 뒤의 음절의 초성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발음상으로만 보면 ‘마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조가 온 것은 ‘ㄱ’ 계열의 음을 씌우므로 인해 귀엽게 표현하려는 의도성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 ‘ㅁ’가 발음나는 대로 ‘ㅁ’로 나타났으며, ㉠ 역시 ‘싫어’의 받침 ‘ㅇ’이 뒤의 음으로 연결되고, ‘ㄱ’ 계열의 모음으로 바꾸었다. 또한 ‘놀고’를 ‘놀구’로 표현한 것은 용언 뒤에 ‘~고’보다는 ‘~구’를 쓰려는 요즈음 언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 노라줘~~

- ㉡ 나 너 마니 조아하는데...넌 나 시러하니?
- ㉢ 니가 먼데 나 무시하냐?
- ㉣ 엇~~니가 보고 있는 거 머야?
- ㉤ 너 왜 자꾸 나 가꾸 놀리냐?
- ㉥ 마조~ 개 정말 나쁘더라~~
- ㉦ 난 여기서 놀구 시포~

소리 나는 대로 적기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노라줘	놀아줘
㉡	마니, 조아하는데, 시러하니	많이, 좋아하는데, 싫어하니
㉢	먼데	뭔데
㉣	머야	뭐야
㉤	가꾸	갓구
㉥	마조, 개	맞아, 개
㉦	놀구, 시포	놀고, 싫어

2.5.2. 문장 부호의 생략과 남용

문장에서 문장 부호는 없어서는 안 될 기호이므로 반드시 써 줘야 한다.

문장 부호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문장은 의미문을, 한 문장을 평서문을 나타내는 등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 언어에서는 문장 부호에 대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예 문장 부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쓰지 않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쓰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통신 언어 사용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빠르게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문장 부호에 신경을 쓰지 않아 생략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문장 부호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 인해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부호의 남용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갖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띤다. (16)의 예들은 반드시 쓰여야 할 문장 부호가 생략됨으로 인해 의도하려고 했던 바와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된 것들이고, (17)의 예는 문장 부호의 과도한 사용이 보이는 예들이다.

(16) ㉠ 지원이 많이 아파

㉡ 너 성적 좋아

㉢ 학교 안 가도 돼

㉣ 준비물 안 갖고 왔어

문장 부호의 생략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지원이 많이 아파	· 지원이 많이 아파. · 지원이 많이 아파?
㉡	너 성적 좋아	· 너 성적 좋아. · 너 성적 좋아?
㉢	학교 안 가도 돼	· 학교 안 가도 돼. · 학교 안 가도 돼?

㉔	준비물 안 갖고 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안 갖고 왔어. · 준비물 안 갖고 왔어?
---	-------------	--

(17) ㉑ 개한테 물어봤나??????????????????

- ㉒ 너 정말 짱이닷!!!!!!!!!!!!!!!
- ㉓ 시간이 왜 이리 안 가~~~~~
- ㉔ 오늘 섬 최고로 잘 봤어.....
- ㉕ 헉헉!!!!!!!!!!!!!!!

문장 부호의 남용 현상		
구 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㉑	물어봤나??????????????????	물어봤나?
㉒	짱이닷!!!!!!!!!!!!!!!	최고다!
㉓	가~~~~~	가~
㉔	봤어.....	봤어.
㉕	헉헉!!!!!!!!!!!!!!!	헉헉!

2.5.3. 띄어쓰기의 생략

통신 환경에서는 띄어쓰기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무시하고 이어 적는 경우가 많다. 한 단어와 한 단어를 붙여 적는 경우도 있고, 한 문장 전체를 다 이어 적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어 적기 현상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현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건당 20원이라는 것과 메시지를 보낼 공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보면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이어 적기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불편하여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기대

하기가 힘들다. 또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띄어쓰기를 언제 해야 할 지를 파악하지 못해 이어 적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는 통신 언어 환경으로 인해 국어 규범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 학생들에게 띄어쓰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키워줄 수 있다. (18) ㉠의 예는 의도적으로 한 문장 전체를 다 붙여 써서 띄어쓰기를 무시한 예이고, ㉡은 ‘갈’과 ‘수밖에’ 사이에 띄어주어야 하는 것을 붙여 쓴 단어와 단어의 붙여 쓰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 ㉤은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는 규정⁷⁾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은 ‘세’와 ‘마리’ 사이를 띄어 적어야 한다. 또한 ㉣은 ‘사랑할’과 ‘뿐’ 사이를 띄어 써야 하고, ㉤은 ‘생긴’과 ‘것’ 사이를 띄어 써 주어야 한다.

(18) ㉠ 나너뻘시올라오래기다렸소

- ㉡ 도서관에 갈수밖에
- ㉢ 울 집 강쥐가 새끼를 세마리나 낳어^^
- ㉣ 난 너를 사랑할뿐
- ㉤ 개 여친 생긴것 같드라

띄어쓰기의 생략 현상		
구분	통신상에서의 표현	올바른 표현
㉠	나너뻘시올라오래기다렸소	나 너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
㉡	도서관에 갈수밖에	도서관에 갈 수밖에
㉢	울 집 강쥐가 새끼를 세마리나 낳어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세 마리나 낳어
㉣	난 너를 사랑할뿐	난 너를 사랑할 뿐
㉤	개 여친 생긴것 같드라	개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

7) 한글 맞춤법 제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2.6. 통신 언어 현상의 요인

위에서 살펴본 음운론, 어휘론, 형태론, 화용론적 현상을 노력을 최소화하여 의사를 전달하려는 경제성의 차원과,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표현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원리는 얼핏 보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원리는 적절히 조화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알맞게 견제를 하고 있다⁸⁾고 볼 수 있다.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 통신 언어가 생기게 된 원인이 초기에는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표현성을 추구하는 경향, 즉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이나 새로운 분위기 형성 혹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원인으로 사용 원인이 변화하였다.⁹⁾ 이러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원인이 변화하게 된 이유에는 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전화선에 연결하여 모뎀의 방식으로 사용하였기에 오래 사용할수록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초고속 통신망이 생겨나면서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액수를 지불하면 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경제성의 추구보다는 표현성의 추구를 꾀하는 현상이 많이 등장하게 되

8) 김진우, 『언어와 의사소통-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 한신문화사, 1994, p.221-229.

9) 한성일,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Vol.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p.218.

지금까지 여러 논의에서 나타난 통신 언어 사용 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타자를 빨리 치기 위해서
- ② 통신상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 ③ 표기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 ④ 대화 구성원들과의 동질감을 위해서
- ⑤ 통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 ⑥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대화의 감정 보충)
- ⑦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었다고 할 수 있다.

2.6.1. 경제성

통신 환경에서의 경제성은 가능한 말을 간단하고 보다 쉽게 하려는 것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신 환경에서는 발음 나는 대로 적거나 음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 자라도 타수를 덜 치려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의 측면을 따르지 않고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촌스럽다는 인식 또한 이러한 현상을 자주 나타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인 것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성의 추구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의사소통은 화자(話者)가 말한 의도를 청자(聽者)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나친 경제성의 추구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단절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의사를 받아들일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성을 추구하는 언어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음운론적 현상인 축약과 생략 현상이 대표적이다. 긴 음절의 단어를 짧은 음절로 바꾸므로 인해 간편함을 획득하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축약 현상과 긴 단어를 짧게 표현하는 생략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통신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축약, 생략 현상은 일상 언어에까지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19) 드더 넌넌 기다리던 시험이 끝난당..

(19)는 축약과 생략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드더’는 ‘드디어’에서 ‘디’와 ‘어’가 축약되어 ‘더’가 된 것으로 축약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넘넘’은 ‘너무너무’에서 모음 ‘ㅓ’가 생략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은 각각 3음절, 4음절을 2음절, 2음절로 축소되어 나타난 것으로 한 자라도 덜 치려는 발화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형태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 가까운 형태이다.

어휘론적 현상에서는 약어 현상도 경제성을 추구하는 현상에 해당되는데, 특히 각 어절의 앞 글자만 따서 붙인 두자어가 그러하다. 특히 두자어(頭字語)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긴 음절의 단어를 말할 때에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현상은 국어 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통신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른 언어 현상과 구별될 수 있다.

(20) 즐겼~

(20)은 ‘즐거운 게임 시간을 지내라’는 의미에서 ‘즐거운’의 ‘즐’이 두자어로 나타났으며, ‘겼’은 ‘게임’의 생략 형태로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두자어는 단체, 조직명 등과 같은 긴 음절을 지닌 단어를 짧게 표현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경실련’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통신 언어 현상에만 국한시켜 볼 수는 없다.

형태론적 현상에서는 문장 줄이기의 현상도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를 중심으로 나타내고,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생략하려는 것으로 자신이 나타내려는 의사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문장 줄이

기의 현상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종결어미를 아예 생략시키는 생략 형태와 별 의미 없는 종결어미를 명사형으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만 전달했으면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으려는 통신 이용자의 경제성 추구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21) 나 개 별로...

(21)에서는 ‘별로야.’라고 해야 완전한 문장 단위의 발화가 되는 것인데, 자신의 의사만 드러내면 된다는 경제성의 추구로 ‘별로’라고만 나타내어 뒤에 와야 할 종결어미를 생략시켜 그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자신의 의향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영어를 구사할 때 많이 쓰이는 것으로 축약어¹⁰⁾ 역시 말을 간단하게 전달한다는 경제성의 측면을 지닌 것으로, 경제성 추구로 인한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 축약어는 소리 나는 발음과 비슷한 알파벳을 활용하여 표기하거나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사용¹¹⁾하고 있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축약어의 형태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간단한 영어를 표현할 때에는 가능하나, 복잡하거나 긴 문장을 표현할 때에는 제약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수용자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10) 1998년에 출판된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개정판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쓸 때 애용하는 축약어를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축약어를 국어사전에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 반 논의가 거세졌다.

11) 어절의 앞 글자만 따서 붙여 또 한 단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위에서 밝힌 두자어(頭字語)와 비슷하지만, 국어를 구사할 때 나타나는 두자어와는 달리, 영어를 구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영어를 구사할 때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과 통칭하여 축약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 (22) ㉠ CUL8R(See you later.)
 ㉡ U(You.)
 ㉢ Y(Why)
 ㉣ How r u(How are you?)
 ㉤ HAND(Have a nice day.)

(22)에서의 ㉠~㉣은 발음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은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낸 것이다.

2.6.2. 표현성

표현성은 일상 언어와는 다른 새로운 언어를 추구함으로써 인해 느낄 수 있는 흥미와 색다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흥미성 추구 현상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또한 발화자가 나타내려는 의사에 감정, 정서 등의 비언어적인 의미와 발화자의 의도를 덧붙여 나타내는 것으로, 의사전달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통신 환경에서의 표현성은 색다른 표현의 맛을 살려 신선함과 개성화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많다.

표현성의 대표적인 현상은 음운론적 현상 중의 하나인 첨가 현상이다. ‘ㅇ’, ‘ㄴ’, ‘ㄹ’ 등 자음의 삽입으로 언어적인 요소 이외에 비언어적인 요소를 덧붙여 드러낸다.

- (23) 널 또 봐용~

(23)은 ‘봐요’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친근하고 애교스러움을 덧붙여 드러내기 위해 ‘ㅇ’를 삽입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비면대면인 통신 환경에 정서

적인 요소를 삽입시킴으로 딱딱하거나 삭막한 느낌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자음의 삽입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통신 환경의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론적 현상에서는 은어, 비속어, 외래어 · 외국어, 방언, 유행어를 표현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통신상의 은어는 새로운 표현을 생산해 내고, 개성 있게 사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려는 것이기에 표현성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한 집단 내에서 비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 언어의 은어와 다른 의미인 통신 언어의 은어는 자신의 발화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 비속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24) 저기 짱박혀 있어라

(24)는 은어가 쓰인 것으로, ‘한 구석에 계속 머물러 있다.’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저기 한 구석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일반적인 표현의 식상함을 벗어나고, 새로운 표현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생겨났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화자의 어감이 덧붙여 나타나는 것으로 통신 환경을 넘어, 청소년의 일상 언어 환경에서도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다.

표현성 측면의 대표적인 현상이 비속어의 사용이다. 언어적 요소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며,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25) 그만 하고 즐쳐 드셈...

(25)는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 빈정댈 때 쓰이는 ‘즐’에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어감이 들어 있어 강한 느낌이 풍기는 ‘쳐’를 결합한 것이다. 한 마디로 ‘즐쳐’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뒤에 나타나는 단어가 ‘떡다’가 아닌 ‘드시다’의 표현을 사용하여 ‘즐쳐’와 ‘드셈’에서의 표현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된다. ‘즐쳐’는 상대방을 격하시키는 일종의 낮춤 표현이고, ‘드셈’은 ‘떡다’의 높임 표현인 ‘드시다’에서 변형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미를 극대화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더욱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친 표현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의사가 즉시 전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외래어 · 외국어는 대체적으로 외래어 · 외국어가 고유어보다 고급스럽다는 발화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신 환경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 외국어는 세련된 표현을 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흔히 자주 사용하는 고유어의 식상한 느낌에서 탈피하여 색다른 표현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쓰이게 된 통신 환경에서의 외래어 · 외국어는 쓰이는 단어 수준이 기초적인 수준을 가지는 쉬운 어휘이기에 폭넓게 쓰여 현재는 보편성을 획득한 상태이다. 또한 고유어로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어 외래어 · 외국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6) 하이염~~

(26)의 ‘하이’는 ‘안녕’이라고 표현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하이’가 쓰이기 시작하게 될 때에는 색다른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를 어느 정도 드러냈지만, 점차 보편화되어 쓰이게 되면서 현재는 식상한 느낌마저 풍기게 되었다. 이렇듯 사용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새로운 어휘가 점차 일반 언어화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언어의 방언과는 달리, 통신 언어의 방언은 재미를 추구하거나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한 발화자의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7) 싫습니데이~

(27)의 예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는 ‘싫습니다.’의 표현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고, 친밀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방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언을 활용한 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 환경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 시대에 새로 생긴 유행어를 사용함으로 독특함을 추구하려는 발화자의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나 얼짱 출신...

(28)의 예는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며, 단순히 ‘얼굴이 잘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오는 식상함에서 벗어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얼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유행어를 쓰지 않고 일반 언어

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어색할 정도로 언어 현상을 변화시켰다.

덧붙여 발화자의 감정을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이모티콘¹²⁾의 사용 역시 일상 언어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을 벗어내고, 색다르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현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모티콘의 모양만 보아도 의미가 쉽게 전달되며, 문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한다. 즉 친밀한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모티콘의 사용으로 통신 언어는 문자 언어인 텍스트로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음성 언어가 수반하는 표정을 지니고 있기에 음성 언어의 측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통신 언어는 글말과 입말이 합쳐진 형태인 것이다.

(29) ㉠ 귀여운데~~~ 셀카는 연예인도 다 찍음 뭐라하긴 _ _ _ ..

㉡ 진짜 잘찍는다 _ _ _

㉢ 너무 이뿌다....답구싶다>_<*

㉣ 모자 사고싶은데 T.T

㉤ 함박웃음 : 난 어제 샀지롱^^

(29)에서는 사람의 다양한 표정을 자판을 조합하여 만들어 낸으로 발화자의 감정, 정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모티콘을 통한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닌, 전 세계에서 별다른 장애 없이 동일한 의미를 부드럽고 친밀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보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 이모티콘은 기분이 언짢은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은 무표정한 얼굴 모습을, ㉢의 이모티콘은 깜짝 놀란 얼굴 모습을 나타내었다. ㉣은 울고 있는 모습을, ㉤

12) 감정기호라고 일컬어지는 이모티콘(Emticon)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표시 형상인 아이콘(Icon)의 합성어이다.

은 웃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국어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인 상징어¹³⁾ 또한 컴퓨터 환경에서 표현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어를 통하여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해지며,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성이 추구되는 것이다. 통신 환경에서 실현되는 상징어는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등의 의성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많다.

- (30) ㉠ 까~~~~~이빠이빠 !!!!!TTTTTTT 우억
㉡ 힝.....완전귀여움!
㉢ 푸하하하하 여러 종류에 사람이 있구만~ ㅎㅎㅎㅎ
㉣ 첼퍼덕~완전 다 까졌엉...TT
㉤ 허둥지둥 챙겨 나왔어..

(30)에서 나타나는 예들은 대부분이 의성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의 ‘까’는 감탄을 할 때에 내뿜는 소리를 흉내 내어 나타낸 것이다. ㉡의 ‘힝’은 울음소리를, ㉢의 ‘푸하하하하’는 호탕하게 웃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의 ‘첼퍼덕’은 넘어질 때에 나타내는 소리인 ‘첼퍼덕’을 변형시킨 것으로 이 또한 의성어에 해당한다. ㉤은 의태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언가에 쫓겨서 허둥댈 때의 움직임 흉내를 나타낸 것이다.

13) 상징어는 소리와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는 단어를 나타낸다.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가 이에 속한다.

Ⅲ. 통신 언어 지도 내용 설정 원리

3.1.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통신 언어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의 학습 내용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교육 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비교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떠한 점을 중점에 두어 개정하였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3.1.1. 제7차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통신,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의 영역별¹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차까지는 국어 교육의 영역을 말하기, 듣기 순서로 제시했지만, 7차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순서로 바뀌었기에 이러한 순서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신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 표는 컴퓨터 통신 매체에 대해 언급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표 - 1> 7차 교육과정에 통신 내용이 언급된 7-10학년 영역별 내용

14)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된다. 앞서 1장 연구 대상과 방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중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인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렇기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의 순으로 언급하겠다.

학년	중. 고등 교육과정의 영역별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7학년		<p>【7-말-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p>		<p>【7-쓰-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p>	<p>【7-국-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p> <p>【7-국-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8학년		<p>【8-말-4】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p>			<p>【8-국-7】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p>
9학년			<p>【9-읽-6】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p>	<p>【9-쓰-2】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p>	<p>【9-국-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p>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9-국-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0학년			【10-읽-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10-쓰-2】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위의 표는 컴퓨터 통신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7차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을 도표화해서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등의 5 영역 중 듣기 영역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가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언급된 나머지 4 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시청각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한다.’,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는 식의 컴퓨터 통신 환경을 정보 획득의 수단이나 글 쓰는 도구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의 글 쓰는 경우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경우보다 많은 요즘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통신 매체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교육과정이 요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지식 영역의 경우 통신 환경에서의 언어 파괴 실태를 바탕으로 한 문제 지적 등의 윤리적인 문제에만 중점을 두어 밝히고 있다. 통신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통신 환경에 나타난 문제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매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과 표현 효과의 극대화 방안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통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덧붙여 통신 환경에서의 소통을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실제적인 자료에 입각한 수업이 행해졌을 때 일상 생활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3.1.2.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¹⁵⁾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영역을 유지하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도 기존의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선택 과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징적인 점은,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국어 생활을 제외하고, ‘매체 언어’ 영역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매체 언어 영역의 성격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31) 매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과 느

15) 개정 교육과정을 담은 교육과정 해설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http://www.kice.re.kr/kice/article/m302/view?searchtype=stored&hitadd=1&articleid=6448>)를 참고하였다.

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포괄한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는 예전에 비해 언어 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매체 언어 역시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언어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매체 언어는 기존의 언어 운용 방식과는 일정한 차이를 지닌다.

이 과목에서는 매체 언어의 성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아가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며, 언어 문화를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창조적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매체 언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담고 있는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다.

이러한 ‘매체 언어’영역의 신설은 매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새 시대의 증가하고 있는 소통 맥락의 범위를 확대하여 바라보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켰기에 의사소통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방법 중의 하나로 매체를 통한 방식이 다루어짐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과정의 하나로 매체의 언어가 자리매김하며, 주체적인 언어 구사 능력의 배양과 함께 비판적, 창의적 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나타난 컴퓨터 통신 매체 언급 내용을 도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 2> 개정 교육과정에 통신 내용이 언급된 7-10학년 영역별 내용

학년	중. 고등 교육과정의 영역별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7학년		(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¹⁶⁾		(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¹⁷⁾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¹⁸⁾
8학년				(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¹⁹⁾	
9학년					
10학년		(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²⁰⁾			
--	--	--------------------------	--	--	--

위의 표는 컴퓨터 통신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개정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을 도표화해서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 과목인 ‘매체 언어’ 영역 외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도 인터넷 매체에 대한 내용의 반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9학년에서는 통신 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통신 매체와 관련된 각 학년 간에 유기적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신 환경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제공원 측면에 치우쳐 있었던 것에 반해,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루어야 하겠지만 김정자(2003)에서는 문자 중심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동영상, 그림, 음악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텍스

16) 이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의 예들 중 통신 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예를 위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해하기
-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논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 언어 예절, 인권, 초상권 등을 고려하기
- 17)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선정하기
- 18) ○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
- 19) ○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글 쓰기
 - 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 20)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할 때 필요한 자료 이해하기
 - 글, 사진, 그림, 동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 청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트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성일(2004)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에 ‘하이퍼미디어 언어 교육’이라는 대단원을 설정해서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생활 국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정해서 하이퍼미디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인터넷 대화방 표현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에 ‘하이퍼미디어 언어 교육’이라는 대단원을 설정하고, 그 하위 단원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대화방, 전자우편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2. 국어과 영역별 통신 언어 내용 설정 원리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사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통신 언어가 점차 20, 30대의 청년층에까지 사용자 폭을 넓히고 있으며, 대화방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였던 통신 언어가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제외하고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또래들과의 일상 대화 등 통신 공간 이외의 범위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통신 언어는 단순히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만 쓰이는 언어라고 단정 짓기 힘들어졌다. 위에서 밝혔듯 인터넷 이용률은 74%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에 이러한 통신 언어는 일상 언어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호영(2004)은 설문 조사를 통하여 통신 언어를 일상 언어에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89.1%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언어의 창조원 역할을 통신 언어가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

듯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언어로 인해 일상 언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통신 언어는 일상 언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신 언어로 인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생활은 전반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그렇기에 이번 장에서는 통신 언어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지도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기와 듣기를,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1. 통신 언어가 말하기 · 듣기에 미치는 영향

말하기와 듣기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말하기는 언어 표현 현상이고, 듣기는 언어 이해 현상이다. 이러한 말하기와 듣기는 요즘 들어서 강조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말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소위 말하는 스피치학원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말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말’을 토대로 실현되는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2.1.1. 설정 원리

<표 - 3> 통신 언어가 경제성, 표현성의 원리로 인해 말하기 · 듣기에 미치는 영향

언어	영역별 구분	
	말하기	듣기

현상 요인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말을 사용한다.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완전한 문장 성분을 갖춘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화 내용이 길어지면 급속도로 주의가 흐트러진다. ◦ 단어 중심의 발화에 익숙해 있다.
표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ㅇ, ㅂ, ㅅ)을 첨가한다. ◦ 비속어를 사용한다. ◦ 은어를 사용한다. ◦ 외래어 · 외국어를 사용한다. ◦ 유행어를 사용한다. ◦ 상징어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언어는 따분하고, 재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반 언어 중심의 대화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 통신 언어를 언어 생활에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따라 화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존중해 주기도 한다.

통신 언어가 일상 생활의 말하기 영역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특성은 준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준말은 통신 환경에서는 한 타수라도 덜 치기 위한, 경제성을 위해 실현되었다. 통신 환경에서는 말이 아닌 자판을 통해 글로 의사소통하기에 자판을 치기 위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속도가 느려지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흐름도 방해하기에 경제성의 측면에서 준말이 사용되었다. 일상 언어에서 쓰이는 준말도 역시 간단하고 쉽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에 경제성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의 원리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통신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통신 환경에서 표현하는 바를 일상 언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내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일상 언어보다는 통신 언어에 물들어 있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통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뒤떨어져 보이고, 또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은 의식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언어의 유희성 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듯 통신 언어를 일상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준말의 사용이 과도할 경우, 청소년들만의 언어로 전락하여 다른 세대와 의사소통의 단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문장 성분을 갖춘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어체인 쓰기보다 구어체인 말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신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도 발화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거나 앞 문장과 중복되는 주어나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신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문장 성분의 무분별한 생략 현상이 보인다. 상대방이 쉽게 짐작할 수 없거나, 앞 문장과 중복되는 문장 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화자(話者)의 일방적인 생략 현상은 대화의 흐름을 단절시키며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화자(話者)의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리고 원래의 표기보다 어떠한 음운을 첨가시켜 표현하려는 것도 통신 언어에 의한 영향이다. 통신 언어에서도 나타났던 자음 ‘ㅇ’, ‘ㄷ’, ‘ㅅ’ 등이 받침으로 붙어서 화자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며, 의도적으로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그렇기에 화자가 표현하려는 바를 극대화해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표현성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 나타나는 음운의 첨가는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것과 차이점을 지닌다. 비대면적인 공간인 통신 언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음운의 첨가를 통

할 수 있을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지만, 면대면의 공간인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음운의 첨가를 실현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발음과 억양, 몸짓, 표정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화자의 의지대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운의 첨가가 사용되는 것은 통신 환경에서와 같이 기존 규범에서의 일탈을 보여주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비속어의 사용도 표현성의 원리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위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언어적 요소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고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일상 언어에서 쓰이는 비속어도 통신 환경에서 쓰이는 비속어와 마찬가지로 규범을 무시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를 획득하고 새로움을 획득하여 일탈의식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속어는 사용하는 집단끼리 동질감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10대 남학생의 경우에는 비속어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힘들 정도로 비속어에 물들어 있으며 비속어가 일상 언어처럼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통신상의 은어는 신선한 표현을 개성 있게 사용하여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려는 것이기에 표현상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통신상에서 특수한 한 집단의 구성원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해 쓰였던 은어라 하더라도, 일상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쳐 범위가 확대되어 쓰이면 더 이상한 집단의 비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상 언어에 까지도 통신 은어가 퍼져나갔다는 것은,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은어 본연의 속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호영(2004)²¹⁾는 비밀 유지의 기능 없이 통신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쓰이는 일상 언어의 은어는 비속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고유어보다 외래어 ·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통신 언어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보급됨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화자(話者)의 의도로 인하여 외래어 · 외국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는 표현은 외래어 ·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특정한 매체 수단에서 통용되는 어휘는 대체로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표현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다. 그 예로 ‘미니 홈피’, ‘블로그’, ‘아바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식상한 일반 언어를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표현성의 측면에서 외래어 ·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높은 전달성과 보급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로 인하여 새로운 유행어가 많이 만들어지며, 전파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어린 청소년일수록 컴퓨터 통신에 의존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통신상에서 나타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인기를 얻게 되어 널리 퍼져, 일상 생활에서 구현될 정도의 보편적인 언어가 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가 되면 통신상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언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행어는 신기함과 흥미를 추구하기 위한 표현성의 측면에서 생겨

21)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던 은어가 일상 언어에서 사용될 때는 특정 계층에서 자신들끼리의 의사소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행어의 성격이 강한 속어로서 통신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기 만족감과 의사 전달을 재미있게 하려는 유희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호영, 『일상 언어에 통신 언어가 미친 영향 연구 : 춘천 지역 여중생의 어휘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71.)

나는 것이기에, 보편성을 획득하여 흥미가 반감되면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찾게 된다.

의성어, 의태어, 감탄사 등의 상징어를 통하여 실감나는 표현이 실현되며,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성이 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표정이나 느낌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비대면적인 공간의 통신 환경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징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 나타나는 상징어는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것과 차이점을 지닌다. 비대면적인 공간인 통신 언어 환경에서는 상징어를 실현할 수 있을 때 화자의 비언어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면대면의 공간인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굳이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화자의 표정이나, 억양 등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징어가 사용되는 것은 새로움과 언어의 유희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발화 내용이 길어지면 지루해하는 것은 통신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 통신이 생기기 이전부터 발화 내용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청자(聽者)의 집중도도 떨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만 간단하게 하여 경제성을 획득하는 컴퓨터 통신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완전한 성분을 갖춘 문장 단위의 발화가 아닌 단어 중심의 발화를 듣고자 한다. 문장 단위의 발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쉽게 지루해하며, 급속도로 주의력이 흐트러진다.

영상 세대인 10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것에 익숙해진 계층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존의 것을 반항하는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10대 특유의, 기성 세대에 대한 반항감

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 언어를 기성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여 일반 언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통신 언어가 듣기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 언어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 언어로만 표현을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따분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렇듯 통신 언어를 일반 언어에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화자(話者)를 무시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한다. 이렇듯 일반 언어를 재미없고 식상한 언어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경향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표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어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 언어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기에 통신 언어가 포함되지 않은 공식적인 담화 상황 등에서 듣기 활동을 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며, 지루해하는 모습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비대면적인 통신 환경의 특수한 상황적 이유로 나타났던 여러 요인들이 대체적으로 일상 언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추구함으로써 인해 독특함을 얻고, 재미를 획득하고자 하는 언어의 유희성 추구의 이유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규범을 탈피함으로써 일탈 의식을 획득하고자 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일상 언어에서의 지나친 통신 언어 사용은 언어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세대 간의 단절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2.1.2. 지도 내용

<표 - 4> 통신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말하기 · 듣기 영역의 지도

내용

영역별 구분	지도 내용
말하기 ·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기본적으로 창조성과 더불어 사회성을 지녀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 대중 매체에서의 통신 언어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 실제 통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법을 강화해야 한다. ◦ 국어 규범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통신 환경의 언어는 간편하고 쉽게 전달하려는 경제성과 재미를 추구하여 표현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표현성으로 인해 생겨났다. 하지만 경제성과 표현성 모두 정상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언어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 요건이 무시되면 이는 언어로써의 의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창조성과 더불어 사회성을 지녀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언어의 창조성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 냄을 의미하고, 언어의 사회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간에 맺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기에 개인이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말을 임의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는 창조성은 통신 언어가 주로 갖고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사회성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0대들이 흔히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대다수를 중, 장년층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역시 통신 언어가 사회성을 가지지 못함을 나타내 준다. 그렇기에 하나의 언어가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아울러 모든 세대가 별다른 장애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을 지녀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무

조건적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신기한 표현을 추구하여 언어를 하나의 장난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에서의 통신 언어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에 앞장서야 하는 대중 매체가 오히려 언어 파괴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현 실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TV 자막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TV나 라디오 등 접근성이 높은 대중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통신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현 실태를 생각한다면 대중 매체의 언어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나타내어준다. 그렇기에 대중 매체 환경에서의 언어 규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 매체에 노출이 많은,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의 수준 높은 인식이 요구된다. 요즘은 대중 매체에서 ‘막말 방송’이라고 하여 예의와 품격을 갖추지 않고, 국어 규범에도 맞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고 가식 없다고 하여 10대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방송 종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어 규범에 맞지도 않는 새말을 만들어 내기에 바쁘기까지 하다. 이러한 세대에서 생기는 폐해는 사고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현 언어 실태의 심각성을 방송 종사자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여, 방송 종사자 스스로 올바른 언어 생활에 표본이 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통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법 수업은 이론적인 접근에 머무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학생은 문법을 어려워하고, 지루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통신 환경이 문법 수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학생들은 실제 언어 환경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에서 오는 흥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언어 파괴의 현 실태를 직시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통신 환경 속에서의 언어를 대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으며, 올바른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등을 언급하여 실제 국어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문법 수업이 행해져야 한다.

덧붙여 국어 규범에 대해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은 초등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어 규범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장애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정확한 국어 규범을 정립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단계에서 행해지는 기초적인 수준을 밑바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수준 높은 국어 규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나타내려는 바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은 통신 언어가 청소년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 내렸다고 해서 청소년의 언어 생활을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다는 포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선부른 판단은 청소년의 국어 생활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국어의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언어로 인한 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가 요구된다.

3.2.2. 통신 언어가 읽기 · 쓰기에 미치는 영향

읽기와 쓰기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쓰기는 언어 표현 현상이고, 읽기는 언어 이해 현상이다. 표현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일상 생활에서의 말하기와 쓰기는 통신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말에 가까운 통신 언어가 글말인 쓰기보다 입말인 말하기에 영향을 많이 끼쳐 말하기 생활에서 통신 언어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에 쓰기

보다 말하기에서 국어 규범을 깨뜨리는 표현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또한 통신 언어에서 생긴 새말이 다른 말하기의 영역에 바로 전이된다는 점은 입말이라는 구현상의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3.2.2.1. 설정 원리

<표 - 5> 통신 언어가 경제성, 표현성의 원리로 인해 읽기 · 쓰기에 미치는 영향

언어 현상 요인	영역별 구분	
	읽기	쓰기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를 기피한다. ◦ 고차원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신장을 저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완전한 문장 성분을 갖춘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표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언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휘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 ◦ 올바른 표현과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가려내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표현 부호(이모티콘)을 사용한다. ◦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10대 청소년은 영상 매체에 익숙하여 듣고, 보는 것이 읽고, 쓰는 것보다 익숙한 세대이다. 듣고, 보는 것은 경제성의 측면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읽고, 쓰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당사자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멀리한다. 그래서 취미 생활로 TV 시청이나 영화 감상 등을 꼽아도, 독서로 꼽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고들 한다. 이러한 현상은 활자화된 매체를 등한시하고, 영상화된 매체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 실태를 반

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짧고 간단한 표현 위주의 통신 언어가 읽기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깊고 진지한 사고 신장을 방해하고, 단순하고 자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기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비속어와 은어 위주의 통신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반 언어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통신 언어의 어휘는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언어의 어휘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휘력의 저하 현상은 독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력의 저하로 인해 일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은어, 비속어 의미에 해당하는 일반 언어를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은어,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이 되는 2~30대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청소년 때와 같이 은어, 비속어 위주의 언어 생활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성인이 되면 익숙해 있는 어휘를 벗어내고, 새로운 어휘를 배운다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표현성의 음운의 첨가, 비속어 등의 통신 환경으로 인하여 올바른 표현과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가려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의식과도 연결된다. 읽는 활동을 하는 중에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고 마치 올바른 표현으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국어 규범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현 학교 현장의 실태로 인해, 국어 생활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범을 익혀야 하는 10대 학습자에게 더욱 혼란만 키워주게 되어 장차

국어의 정체성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온전한 문장 성분을 갖춘 표현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만을 간단하고 쉽게 전달하려는 통신 언어의 경제성 측면으로 인한 영향이다. 이는 앞서서도 밝힌 바 있는 말하기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쓰기와 말하기는 표현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화자(話者)의 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 성분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표현이 일반화되면서, 공식적인 쓰기 활동을 행해야 할 때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구어체의 문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통신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이모티콘이 현재는 일상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히려 이모티콘을 제외하고 글을 쓰면 딱딱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공식적인 서류 작성을 제외한 모든 쓰기 활동에 이모티콘이 항상 포함된다. 특히 친밀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이모티콘을 필수적으로 삽입시킨다는 점에서, 이모티콘의 기능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모티콘은 글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함으로써 인해 친밀한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모티콘을 통한 표현은 일상 언어에서 오는 무미건조함을 벗어내고, 색다르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표현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비문법적인 표현이 쓰기 생활에도 공공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금의 통신 환경은 10대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도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국어 규범이 익혀지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문법에 맞지 않는 통신 언어에 익숙해짐으로 인해, 비문법적인 표현이 일상 생활의 쓰기 생활에까지 나타나며, 그러한 표현이 틀렸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읽기와 쓰기에는 국어 문법을 알지 못해 잘못된 표현을 구사하여 국어 규범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문법 지식을 알지 못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말을 창조해 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 개성을 추구하려는 의식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국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 전달의 도구가 되는 언어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남과 다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표현한다거나, 띄어쓰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거나, 국어 규범에 맞지 않는 맞춤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표현을 암호처럼 사용하여 언어의 사회성을 위배시키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논리적인 글을 써야 할 때도 통신상에서나 봤음직한 어휘, 구문 형식이 무시된 문장, 문어체가 아닌 대화체의 어휘 구사,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무시한 경우가 많이 등장한다. 장난삼아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어린 학생들이 장래의 국어 생활을 주도해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될 수 있고 국어의 정체성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국어의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3.2.2.2. 지도 내용

<표 - 6> 통신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읽기 · 쓰기 영역의 지도 내용

영역별 구분	지도 내용
읽기 ·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언어를 10대 청소년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 ◦ 통신 언어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통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어야 한다. ◦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댓글을 올바르게 다는 법 등 통신 언어 사용 방법의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 언어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 주어 언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인식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면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적인 방식인 통신 환경에서 통신 언어 사용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은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만들었으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서슴없이 표현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통신 환경 내에서는 타율적인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에 감시와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통신 언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통신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통신 언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과정은 통신 언어라는 10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해 주고, 통신 언어

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 주어 통신 언어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통신 언어에 대해 가치 판단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통신 언어로 인한 다양한 새말의 창조와 정서 표현의 전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은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통신 언어가 쓰이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신 언어는 단어 그대로 컴퓨터 통신상에서만 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컴퓨터 통신이 아닌 환경에서는 통신 언어를 자제하고, 일상 언어를 구현해야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애교 발음으로 받침에 ‘ㅇ’ 등을 첨가하는 음운의 첨가 현상 등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할 수 있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종의 외계어, 특수어 등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계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 환경에서 외계어를 쓰면 아예 글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외계어 차단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적인 접근을 행해 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통신 언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대면적인 통신 환경이라고 해도, 글을 통해서 읽는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도록 언어를 구사할 필요성을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일례로 아무 생각 없이 다는 악성리플(악플)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나 은어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원색적인 비난을 삼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언어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 주어 언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인식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파

괴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신 언어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봉쇄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현 시대는 인터넷 통신과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신 언어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통신 언어의 사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결론

문명 혜택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도입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쳐 컴퓨터를 제외한 현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컴퓨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의 위력 앞에 특히나 언어 현상의 변화는 우리들의 사고를 변화시킬 정도가 되었다.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말과 글이라는 차원이 아닌, 사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언어 현상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길지 않은 짧은 글을 이용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통신 언어의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은 쉽고 단순한 사고 이외에, 논리적인 사고는 복잡하다는 핑계로 기피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으로 알 수 있는 언어의 중요성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나 컴퓨터 통신 환경에서의 주 이용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컴퓨터 통신 환경으로 인해 통신 언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의 창조자 격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언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만들어 낸 통신 언어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통신 언어로 인해 풍부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으며, 친근하고 정서적인 언어를 역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문자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수단과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받아들여 이를 국어 발전에 토대로 삼는다면 이는 분명 건설적인 모색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어 규범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오염된 언어 현실 앞에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 청소년의 통신 언어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국어과 7차 교육

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통신 언어 관련 내용을 고찰하며, 통신 언어로 인한 국어 생활의 변화와 이로 인한 지도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1장에서는 통신 언어의 개념과 일반 언어와 다른 특성을 알아보았다. ‘전자 언어’, ‘인터넷 언어’, ‘온라인 언어’, ‘채팅 언어’, ‘컴퓨터 대화방 언어’, ‘사이버 언어’ 등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통신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명칭을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통신 언어’라고 하여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닌, 통신 언어의 확장으로 인해 생겨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대화라는 음성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반 언어와 다른 통신 언어의 특성을 ‘통신 언어의 사용자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무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많다.’,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 ‘새말을 만들어 내는 창조자와 새말을 수용하는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산과 수용의 통합성을 들 수 있다.’, ‘개방성과 비대면성을 말할 수 있다.’,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 ‘온전한 문장의 형태로 보기 힘든 짧은 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등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통신 언어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음운론적 현상, 어휘론적 현상, 통사론적 현상, 화용론적 현상, 표기법적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현상에는 ‘축약과 생략’, ‘첨가’로 범주화하였으며, 어휘론적 현상에는 ‘은어’, ‘비속어’, ‘약어(두자어)’, ‘외래어 · 외국어’, ‘방언’, ‘유행어’로, 통사론적 현상에는 ‘어순 바꾸기’, ‘문장 줄이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화용론적 현상에는 ‘존댓말의 미사용’,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기법적 현상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문장 부호의 생략과 남용’, ‘띄어쓰기의 생략’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 점검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경제성과 표현성으로 구분한 통신 언어 현상의 요인을 밝혔다.

3장에서는 위에서 보이는 통신 언어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7차 중학교 교육과정과 개정된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통신 언어가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에 미친 영향과 지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명히 인식하고, 통신 언어와 관련해서 반영된 교육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통신 언어가 그르다고 제시하는 가치판단적인 지도가 아닌,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예를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통신 언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활동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도는 단순한 주입에 머무를 뿐이며, 이는 학생들의 반발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어 생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근거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방법이 주로 요구되어진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통신 언어를 규범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쓰는 악성리플(악플) 차원에서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악성리플로 인해 자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악성리플을 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언어의 현상에 더 이상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실제적인 언어 환경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생활 관련 내용도 현재보다 더 많이 생겨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다루는 교수 학습 방안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직접 조사를 통한 학습자들의 통신 언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과, 개괄적인 교육과정의 분석으로 인해 깊이 있는 접근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심도 있는 학습자의 언어생활 파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분석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연구로 인한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분석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②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연정(2004), 『통신언어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지도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 한국언어학회 동남지회.
- 김수진(2005), 『청소년의 통신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만(2003),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한국어 작문 교육 방향」, 『한국어 교육』 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자(2003), 「전자게시판 글쓰기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정자(200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 김진우(1994), 『언어와 의사소통-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 한신문화사.
- 김현정(2004),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현식(2001), 「정보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윤리교육의 학교교육 활용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13, 교육인적자원부.
- 변강섭(2005),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옥란(2002), 『청소년의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고찰』,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종희(2002), 「중학생 PC 통신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34, 국어교육학회.

안명란(2005), 『통신 언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신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훈의(1996), 『국어과 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유경아(2005), 『통신언어의 오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여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희(1996), 『청소년들의 PC통신 이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에라(2001), 「PC 통신의 대화 언어가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어교육연구』 1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회.

이윤경(2006), 『통신 언어의 특징과 실천적 교육 방안』,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영(2006), 『통신 언어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언어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이호영(2004), 『일상 언어에 통신 언어가 미친 영향 연구 : 춘천 지역 여중생의 어휘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경옥(2005), 『실태 분석을 통한 통신 언어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진수(2005), 『컴퓨터 통신언어 연구』, 역락.

정창웅(2004), 『통신 언어의 전이 양상과 지도방안 연구 :중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상진(2006),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설(2003), 『청소년 통신언어 사용실태와 지도방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원복(2003), 『컴퓨터 통신언어의 실태와 개선 방향』,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성일(2003), 「컴퓨터 대화방의 표현 양상과 국어 교육적 방안」,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 문화 교육』,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한성일(2004), 「인터넷 대화방 표현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허재영(2003), 「통신 언어와 국어과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7, 국어교육학회.
- 홍지은(2006), 『PC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현경(2005), 『통신 언어 사용의 지도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